캐나다 주간 경제동향 (2019년 6월 2주)

- 주캐나다대사관(2019.6.14)

< 6월 2주 주요 경제 동향 >

◈ **Bombardier, CRJ 프로그램 매각 관련 일본 Mitsubishi와 협상 중**
◈ **트루도 총리, 빠르면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추진**
◈ **캐나다 국민 다수가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사업 참여 반대**
◈ **Ford수상, 온타리오주 全 주유소에 탄소세 반대 스티커 부착 의무화**
◈ **'19.1분기 캐나다 평균 총부채상환비율 173%로 여전히 높은 수준**
◈ **캐나다 정부 카놀라 농가 및 수출기업에 1.5억 캐불 보험 지원**
◈ **한국-캐나다 간 방송통신기자재 상호인정 6.15일부터 개시**
◈ **Jim Carr 캐나다 무역다변화장관 방한**
◈ **연방정부, AI 투자로 분식회계 적발 등 회계감사 기능 강화 예정**

1. Bombardier, CRJ 프로그램 매각 관련 일본 Mitsubishi와 협상 중

○ Bombardier가 Canadair Regional Jet(CRJ)* 항공기 제조 프로그램을 매각하기 위해 잠재 인수자인 일본 Mitsubishi Heavy Industries와 협상 중에 있음.

* CRJ는 Bombardier가 1986년 캐나다 정부 소유 Canadair 인수(1.2억 캐불)를 통해 확보한 100석 이하의 민간 항공기 프로그램

- Bombardier는 CRJ 프로그램의 항공기 판매 감소 및 손실 지속으로 매각 추진

○ 업계에서는 양사가 빠르면 6.17일 파리에어쇼에서 인수 합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

[출처 : Financial Post, Globe and Mail(6.5)]

2. 트루도 총리, 빠르면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추진

○ 트루도 총리는 빠르면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* 사용을 금지하고 캐나다 주·준주와 협력하여 플라스틱 생산 기업들이 준수해야할 규제를 만들어 환경오염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발표함.

* 정부가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제품으로는 플라스틱 봉지, 빨대, 포크·칼, 접시 등이 포함

- 연방정부는 이번 계획에 대해 EU 및 다른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호 대책과 유사한 점을 강조하며, 플라스틱의 유해성 증명 등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플라스틱 사용 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

ㅇ 한편, 온타리오주는 지난 3.18일 일회용 플라스틱을 금지하는 Bill 82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, 법안 통과시 △플라스틱 빨대, △폴리스티렌 음식 및 음료수 포장용기, △플라스틱 봉지, △산화분해성 플라스틱, △일회용 커피 컵, △플라스틱 물병, 및 △기타 환경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등이 사용금지 제품으로 포함됨.

- 온타리오주 북부 지역 목재 산업들은 트루도 총리의 정책을 환영하며, 플라스틱의 대체로 종이가 유력한 만큼 반사 이익을 기대

【출처 : 총리실 발표문(6.10), CBC News(6.11)】

3. 캐나다 국민 다수가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사업 참여 반대

ㅇ 여론 조사 기관인 Nanos Research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정부가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사업 참여를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53%* 수준으로 다수를 차지함.

* 반대로 정부가 화웨이를 5G 사업에 참여 시켜야 한다는 여론은 22%이며,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25%

- Nanos Research는 캐나다 국민들이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며, 정부가 화웨이의 5G 참여를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

ㅇ 한편, Globe and Mail에 따르면 화웨이가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 및 대관 업무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있다며, 일부는 前 자유당 및 보수당 행정부 근무 경험자들이라고 언급함.

【출처 : Globe and Mail(6.12)】

4. Ford수상, 온타리오주 全 주유소에 탄소세 반대 스티커 부착 의무화

ㅇ Doug Ford 온타리오 주수상이 8.30일부터 온타리오주 전 지역 주유소에 연방정부의 탄소세 반대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함.

- 온타리오주는 Federal Carbon Tax Transparency Act에 의거 모든 주유기 근처에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,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만 캐불/일 벌금부과 가능

ㅇ 한편, 온타리오주 상공회이소 및 인권단체 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(CCLA)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, CCLA는 온타리오주

【출처 : Ipolitics(6.11)】

5. '19.1분기 캐나다 평균 총부채상환비율 173%로 여전히 높은 수준

ㅇ 2019년 1분기 캐나다 국민 평균 총부채상환비율은 173%로 전분기 대비 보합세를 유지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.

ㅇ 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많은 국민들이 이미 높은 부채 비율로 인한 (부도위험이 있어 이자증가를)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음.

【출처 : Globe and Mail(6.14)】

6. 캐나다 정부 카놀라 농가 및 수출기업에 1.5억캐불 보험 지원

ㅇ 캐나다 정부는 6.13일(목) 카놀라 수출기업에 대해 1.5억불규모의 추가 보험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장 개척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발표함.

- 캐나다는 2018년 기준 세계 50여개국에 총 110억불 규모의 카놀라를 수출하고 있으며, 캐나다 경제에서 연간 270억캐불을 기여하고 있음.

ㅇ 중국 정부는 지난 3.1일 캐나다산 카놀라 씨에 대해 수입을 중단한 바 있으며, 중국은 캐나다 카놀라 씨 수출의 40%(1위)를 차지하고 있음

【출처 : 연방정부 보도자료 종합(6.14)】

7. 한국-캐나다 간 방송통신기자재 상호인정 6.15일부터 개시

○ 오는 6.15일부터 한국과 캐나다와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2단계 상호인정협정(MRA)이 발효됨.

-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다른 기기나 인체에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며,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면 수출할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받는 것이 가능

【출처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(4.29)】

8. Jim Carr 캐나다 무역다변화장관 방한

○ 6.10일 한국을 방문한 Jim Carr 캐나다 무역다변화장관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과 면담하고 롯데마트를 포함한 국내 기업 방문을 통해 캐나다의 카놀라 등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함.

- 이번 방문을 계기로 롯데마트가 캐나다 농산물 및 농식품의 확대 운영 등 협력 강화를 위한 캐나다 정부와 양해문서(MOU)를 체결

○ 한편, 한국은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캐나다 카놀라 오일 수출의 3위 시장이며, 2018년 수출 규모는 2014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바 있음.

【출처 : 무역다변화 장관실 보도자료(6.11)】

9. 연방정부, AI 활용 분식회계 적발 등 회계감사 기능 강화 예정

○ 연방정부가 AI를 활용한 분식회계 적발 등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할 예정으로 AI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 기업인 Mindbridge에 14.5백만 캐불 투자를 6.10일 발표함.

- AI 소프트웨어는 회계 입력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상 징후를 적발하고 정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회계 감사원을 지원 예정

○ 한편, 4대 회계감사법인(KPMG, Deloitte, E&Y, PWC) 등 업계에서는 경쟁력 저하 및 회계 감사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음.

- 이에, Mindbridge는 프로그램 개발 목적이 회계 법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제점들을 알려주는데 있다고 언급

【출처 : 캐나다혁신과학경제개발부 보도자료, Globe and Mail(6.12)】